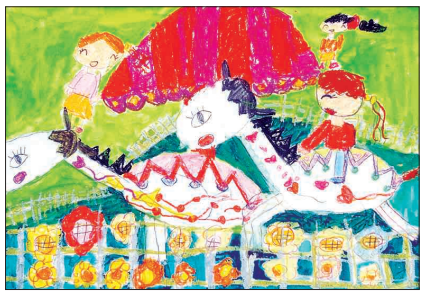


# 제52회 호남예술제 부문별 최고상

## 미술 최고상 수상작



초등부 (1·2년)  
이예린<치평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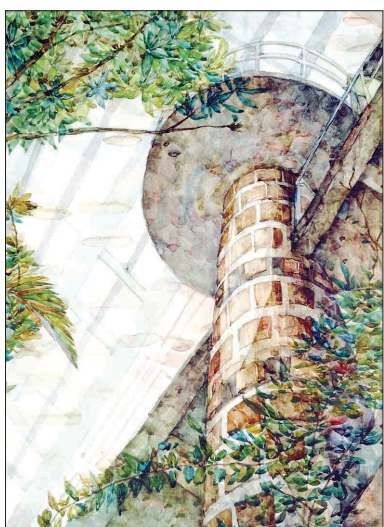
초등부 (5·6년)  
강소희<화개초6>



초등부 (3·4년)  
서영민<염주초3>



중등부  
조은지<전남중3>



고등부  
김해주<광주여고2>

## 미술

초등부	초등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이예린 <치평초 1>	서영민 <염주초 3>	강소희 <화개초 6>	조은지 <전남중 3>	김해주 <광주여고 2>	조혜민 <광주송원초 2>	김하연 <동아여자중 3>	정다음 <풍암고 2>	이상원 <광주송원초 6>

## 바이올린

초등부	중등부	초등부	초등부	초등부	초등부	초등부	초등부	고등부
백세은 <서문초 2>	최화은 <하남중 2>	장세윤 <광주풍향초 2>	서준석 <여수여도초 4>	문지영 <여수문수초 6>	문승태 <운리초 2>	양세미 <문산초 3>	김지원 <광주송원초 5>	안세권 <완도고 3>

## 피아노

## 성악

## 한국창작무용

## 현대무용

## 발레

## 피아노

## 국악(대금)

## 국악(해금)

## 가야금 산조

중등부	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고등부
주사라 <운암중 3>	임은지 <광주예술고 3>	김유리 <조대여중 2>	서윤영 <수피아여고 3>	강은혜 <동아여자중 3>	조사무엘 <광주예술고 1>	이명진 <서강중 1>	배근아 <서울국악예고 3>	이은혜 <서울국악예고 3>

## 시 최고상 수상작

### 바위

김하연  
<동아여자중 3>

나는 바위 하나를 알고있다

항상 누구보다 먼저  
아침을 여는 바위  
직장 상사의 호통과  
자식들의 투정  
세상의 모진 바람에도  
꿇꿍이 버틴 바위

그러나 이제 그의 얼굴에는  
하나 둘 주름이 늘어가고  
재떨이에는 탁탁 떨어내는  
고민들로 가득하다

오늘도 밤 늦게까지  
바위가 있는 방은 환하다

나는 바위 하나를 알고 있다  
아버지라는 이름의 바위 하나

## 단체 최고상

- ▲관현악합주 국악 (광양제철남초)
- ▲국악타악 (광주송원초)
- ▲가야금 병창 (나주초)
- ▲관악합주 (광양제철초)
- 관악합주 (광주동성여자중)
- ▲관현악합주 (광주송원초)
- 관현악합주 (여수여도중)
- ▲한국창작무용 군무 (화순만연초)
- ▲현대무용 군무 (광주송원초)
- 현대무용 군무 (대성여자중)
- 현대무용 군무 (광주수피아여고)
- ▲발레 군무 (유안초)
- ▲합창 (광주송원초)
- 합창 (살레시오여자중)
- ▲그룹사운드 (송의고)

## 산문 최고상 수상작

## 약속 조혜민 (광주송원초 2)

나에게는 남자친구가 한 명 있었다. 유치원때 만난 내 단짝 친구는 학교가 달라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항상 생각이 난다. 여섯 살 때 동훈이가 먼저 말을 걸었다.  
“혜민아 너 먼저 물을 마실래?”  
항상 나에게 먼저 양보해 주는 동훈이가 좋았다.  
“우리 친구 하자.”  
“그래 그래”  
우리는 커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다.  
나를 괴롭히는 개구쟁이 남자 친구들을 볼 때면 내 친구 동훈이가 생각이 난다.  
동훈이도 나를 생각할까?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만나, 멋진 내 모습을 보여 주고 싶다. 동훈이는 나랑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

## 논술 최고상 수상작

## 정다음 (풍암고 2)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불평 등의 사례를 들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역사란, 불평등의 연속이다. 승자에게는 관대하지만 패자에게는 냉혹하다. 승자만이 존재할 수 있는 이것이 지금까지의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이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역시 그 불평등한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어우러진다는 지구촌 세상, 이곳에 만연한 불평등은 무엇이며 그 해소 방법은 어떤 것인가?  
사람들은 지금이 남녀 평등의 세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과연 성차별은 사라진 것일까? 우리나라에는 ‘미망인’이라는 단어가 있다. 흔히 남편과 사별한 여인을 이르는 말이다.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남편을 따라 죽어야 하나 죽지 않은 여자라는 의미다. 이 단어가 공공연히 쓰이고 있는 현상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남녀 차별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예일 것이다. 남녀 평등 의식이 자리잡았다는 유럽에서조차 기업의 고위급 간부 중에 여성은 찾기 힘들다.  
또한, 인종 차별 역시 인류가 가진 불평등 중 하나다. 극단적인 예로, 백인우월주의 단체의 인종 학살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또한 검은 피부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상한 시선을 보내곤 한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모욕과 폭력을 견뎌내야 하는 그들이야말로 인종 차별 의식의 가장 큰 피해자인 것이다.  
셋째로,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나타나고 있는 정보의 불평등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곧 돈이다.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격차가 생겨나며, 이것은 불평등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빌게이츠는 하버드 졸업식의 연설에서 ‘인터넷이 사회의 복잡성을 해소해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공헌했다’고 했으나, 인터넷이야말로 정보의 불평등을 가져온 주 원인이 아닐까? 인터넷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출발선부터 다른 시대가 된 것이다.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 차별 의식을 가지고 있다. 오랜 불평등의 역사 속에서 굳어진 성차별, 인종 차별 등의 문제와 현대 사회에서 파생된 정보의 불평등, 나아가 분배의 불평등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 보편적인 문제인 것이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성 차별 의식을 자리잡게 하는 단어들은 우리말 순화 정책을 통해 사라지게 해야 하며, 인종 차별의 주된 원인이 되는 민족주의 사관을 타파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갈수록 양극화 되는 분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 정보를 얻을 기회의 평등한 보급을 위해 무료 인터넷 보급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평등한 정보 사회를 만드는 것도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전 인류의 의식 속에 공동체 의식이 깊게 자리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역사는 새로 써내려가야 한다. 지금까지의 불평등이 아닌 평등한 관점으로 진정한 ‘지구촌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 지도교사상

- ◆음악  
김경표(광주송원초)  
김대두(운리초)  
김미정(만호초)  
백종구(문산초)  
이승현(광주송원초)  
임종현(광양제철초)  
정병규(여수여도초)  
고동현(살레시오여자중)  
박영집(여수여도중)  
장준수(동성여자중)  
최영환(동성여자중)  
기경숙(광주예술고)  
김미현(완도고)
- ◆무용  
김영순(유안초)  
장유경(화순만연초)  
김기숙(대성여자중)  
김옥영(동아여자중)  
장덕인(조선대학교여자중)  
이수미(광주수피아여자고)  
조경숙(동아여자고)
- ◆국악  
조영옥(나주초)  
최창준(광양제철남초)
- ◆미술  
김춘수(살레시오초)  
김현진(화개초)  
오현숙(염주초)  
이순정(광주송원초)  
이현미(광주효덕초)  
박지영(전남중)
- ◆작문  
조창모(동아여자중)  
강범희(풍암고)

## 종합상

- ◆종합최고상  
광주송원초  
동아여자중  
광주예술고
- ◆종합우수상  
살레시오초
- 동성여중  
광주수피아여고
- ◆단체대상  
여수여도중(합주제)  
광주송원초(합창제)